



제17대 국회 정각회 창립축하법회에는 정각회 회원 30여명 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정각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여섯번째가 이용희 회장.

화합·희망의 상생정치 발원

제17대 국회 정각회 창립축하법회... 각 종단 대표·소속의원 등 '성황'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서

“제17대 국회 정각회 불자들은 여야 구별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비 실천과 한국불교 증흥, 국민화합이라는 대업을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하고 불교를 외호하겠다는 불자 국회의원들의 발원문이 울려 퍼졌다. 바로 국회 정각회 창립축하법회 현장. 이날 행사는 지난 6년간의 공백을 딛고 제17대 불자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정각회의 재 창립을 선언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다.

1981년 제11대 국회 때 출범한 정각회는 1998년 제16대 국회 때 회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등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중단해 왔다.

하지만 제17대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개신교 등 타종교신자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반면 불자 의원들의 활동은 부족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7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불교계 주요인사와 정각회 회원,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변양근 기획예산처 차관 등 700여명의 내외인사들이 참석한 이

날 법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헌축과 고불문 낭독, 정각회 회장단 인사, 법어, 명예 전법사 수여 및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제17대 정각회 이용희(열린우리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창립한 정각회는 여야와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의정활동을 통해 불교계의 현안과 불자들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불제자로서, 입심동체가 되어 부처님의 정법구원과 선양에 솔선수범하고, 불교외교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각회 박세일(한나라당) 부회장 또한 “장군준비가 졸고 있는 선객의 어깨를 내리쳐듯 그동안 분열과 독선 등이 횡횡한 국회에 부처님 진리의 첩보를 내려 바른 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초가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히듯 국회의원은 자신을 태워 국민과 국익을 위한 불을 밝혀야 한다”며 “부처님처럼 국정에 입해, 모든 이들에게 안락과 평안을 얻게달라”고 당부했다.

정각회는 우선적으로 불자 의원들의 실행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정각회에 가입되지 않은 불자 의원들의 참여와 무중

교 의원들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종단 및 관련 단체로부터 불교관련 현안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 중인 회원들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교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제17대 정각회에 가입한 국회의원은 이용희, 박세일, 강창일(열린우리당), 안홍준(열린우리당), 정문헌(한나라당), 이계진(한나라당) 의원 등 총 39명이다.

김은경 기자 ipok@buddhanews.com

정치 1번지 여의도 금강경 독송 '열풍'

국회직원불교신도회가 진원지

국회직원불자들이 국회에 금강경 독송 바람을 불려일으키고 있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길성)가 매주 수요일 국회 지하법당에서 점심시간마다 금강경독송법회를 진행하고 한글로 된 금강경 소책자를 발간, 무료 배포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인 금강경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신도회 김경해(46) 부회장은 최근 사비를 들여 금강경 독송 테이프 3,000개를 제

소책자 무료배포 독송 테이프 보시 매주 한차례 법회

작하는 등 금강경 포교사를 자청하며, 금강경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불교를 접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미처 깨우치지 못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출퇴근시간과 자투리 시간에 금강경을 독송하며 하나둘 알게 됐다”며 “금강경 독송 테이프보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회원들 역시 업무 쉼표에 금강경독송 녹음과 제작 및 배포작업을 도우며, 국회 내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금강경을 알리기 위해 열심이다.

앞으로 국회직원불교신도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금강경 소책자와 독송 테이프를 무주상보시할 계획이다. (02)788-2890 김은경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여주교도소 불심회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사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혀 노력하는 불심회. 안녕하십니까, 여주교도소 불심회입니다.

우리 불심회는 지난 1994년 수원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불자직원 20명을 중심으로 태동했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 수원구치소가 생기고 2001년 수원교도소가 여주로 이주하면서 수원구치소와 여주교도소 두 개의 불심회로 분할되었습니다. 현재는 6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심회는 보안, 용도, 작업,

하는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형과 삼촌 때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재소자들의 고민과 불편사항 등을 듣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상담하다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사람은 바로 이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지은 죄에 대한 참회뿐만 아니라 “참나”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발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부처님의 말씀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재소자라도 더 교회사키기 위해 매주 목요일 재소자



여주교도소 직원불자들이 성지순례 차 지난 10월 17일 양양 낙산사를 찾았다.

포교·상조·봉사부 결성, 활동 극대화

재소자 상담과 영치금 전달에 주력

의무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모여 활동하는 만큼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회원들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포교부, 상조부, 조직부 등을 구성해 자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별 활동을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조부는 직원들의 애경사 등을 챙기고, 포교부는 재소자들을 위한 영치금 마련과 불서 및 영주전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부는 정기적인 생활탐방과 성지순례 등을 기획·진행하고, 봉사부는 양로원과 고아원 등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총무부는 회비 및 각종 교육예산 등을 편성하며 불심회를 알차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불심회는 상·하반기 두 차례, 원주 소책자 마을과 안성 연꽃마을 등을 찾아 생활용품 전달하고 목욕 돕기 등의 노력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에는 여주 경찰서 불자회와 함께 봉축행사와 제등행렬의 질서유지와 뒤편리 등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심회는 직원불자들은 물론 재소자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식 부회장

회장 취임축하 및 송년법회

12월 10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가 송년법회를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다.

지난 10월 제3대 공불련 회장으로 선출된 김세호(건설교통부 차관) 회장의 취임축하를 겸한 이날 자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문과 김세호 회장의 인사말, 새봄에 구성된 회장단 소개 및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법회에서는 제3대 공불련의 사업방향과 주요사업인들이 일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불련 신인 집행부는 최근 전 집행부 및 임원단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중앙사무국 업무 인수인계 및 연합회 향후 발전 방향, 사업아이템 등을 논의했다. (02)739-1080 김은경 기자

【금강선원 매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지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얽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순간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산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4

사람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도 돌 볼 곳 없는 바람이다. 출연하 이 세상에 나와 부질없는 마음에 얽매어, 한바탕 소꿉놀이 같은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로 무엇을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서는가? 바람 같은 인생살이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짊어지고 무겁고 힘든 걸음걸이를 하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날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용서하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듯, 나를 그렇게 용서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화해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묘약이다.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매광(海光)스님 저서 불교비전의승사(불기바의)/심음역하서「운명비결」/최초의 소설식 불교교과서「영 호보 집에 가다」집필 중.

해광스님/열린출판사/값 9,000원
열린출판사 서울 중구 홍우로 37가 33-4 영화빌딩 504호 / 02-2275-3892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 할인)

출고정가 1Set 42만 6000원

탄! “500분”까만!

기획을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물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